

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찰십률포』에서 박지원이 판첸의 외모를 지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단지 주자학자의 편견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⁹⁷⁾ 또한 『태학유관록』에 ‘봉불지사’ 변호론 전개를 위해 박지원이 깔아 놓은 또 다른 ‘장치’들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한다. 8월 9일 일기에는 청의 통관이 조선에서 부처를 공경하는지, 사찰은 얼마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어서 8월 10일에는 황제가 “군기대신”을 보내어 판첸을 만나러 가게 하였고, 박명원 일행이 당혹감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날이 저물어 접견이 취소되는 에피소드가 꽤나 길게 서술되고 있다. 박지원은 이 일을 두고 황제가 “조선은 예의를 알지만 (그) 배신(陪臣)은 예의를 모른다.”는 말까지 하여 청의 통관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일도 언급하였다.⁹⁸⁾

이제 8월 9일의 장면은 8월 10일과 11일에 벌어질 사태의 ‘전조’ 내지 ‘복선’으로 읽힌다. 8월 10일의 에피소드는 이튿날 사신 일행이 판첸을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며 황제의 명령에 저항한 끝에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 황명이라고 마냥 고분고분 따른 결과는 아니었음을 말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8월 11일 황제 알현 전에 “군기대신”이 와서 조선에 사찰과 관제묘가 있는지 묻는 장면도 달리 읽힌다.⁹⁹⁾ 『9.17 장계』는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8월 9일 통관의 질문이나 8월 10일의 에피소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황제 알현 후에 “군기장경”이 와서 던진 질문은 기록하였다. 이 장계의 문맥에서 “군기장경”의 질문은 우연히 불쑥 던진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8월 10일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는 『태학유관록』은

97) 『熱河日記』 『札什倫布』, p. 184.

98)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p. 126-134.

99)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 138.

사찰과 관제묘에 대한 질문을 황제 알현 전에 배치함으로써, 조선 사신을 판첸과 만나게 하려는 황제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견문의 취사선택과 배치·구성에서 관찰되는 박지원의 비범한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가는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열하일기』는 역사학적 사료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연구는 대개 『열하일기』의 텍스트에 대한 ‘내부’적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당시의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외부’적 접근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열하일기』 속 ‘열하 경험’의 중심에 있는 판첸 관련 텍스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한 것이라기보다는 ‘봉불지사’ 변호를 위한 주도면밀한 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실 문학 작품으로서 『열하일기』의 가치는 오히려 단순한 여행 견문록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글의 고찰은 『열하일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료로서 『열하일기』를 대할 때에는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적담과 전문담을 구별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사료와의 일치·불일치 검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직 『열하일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열하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죄다 부인해서도 곤란함은 물론이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봉불지사’ 변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사실의 왜곡까지 감행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찰십륙포』에 8월 14일 ‘건릉과 판첸의 만남’을 배치한 것은 날짜와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의 유사성(‘의례’ 문제)을 좀 더 중시한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지원은 불꽃놀이의 날짜를

8월 11일로 명시한 적도 없다. 적극적인 사실 왜곡은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불꽃놀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불꽃놀이를 8월 11일의 일로 여긴 것도,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박지원 자신의 목격담으로 받아들인 것도 모두 우리였다. 박지원은 그저 밝히지 않았을 따름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 텍스트화에는 귀국 후에 불거진 ‘봉불지사’ 혐의에 대한 변호론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봉불지사’ 문제는 궁극적으로 판첸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열하에서 판첸의 존재감을 고려할 때, 설사 귀국 후에 ‘봉불지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지원은 아마 판첸과의 만남을 대서특필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추측된다.¹⁰⁰⁾ 게다가 판첸은 이미 열하에서부터 박명원 일행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의 진원이었다. 따라서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이 판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하특사 일행이 열하를 방문했던 목적은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데 있었다. 이 점은 박지원 자신도 밝힌 바였다. 「황교문답」을 보면, “선생께서 여기 열하에 오신 까닭은 오직 서불(西佛)[판첸: 인용자]을 배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성탄(聖誕)을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박지원은 “오로지 황상의 칠순 경절(慶節)을 축하(하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¹⁰¹⁾ 대화 쌍방 모두 판첸을 만나는 일과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일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으

100) 당시 열하에 가지 않고 북경에 잔류했던 노이점의 『수사록』을 보면, 박명원 일행이 북경에 돌아온 8월 20일의 일기에서 대부분의 지면을 판첸에 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록』의 말미에는 아예 「반선시말(班禪始末)」이라는 별도의 글을 덧붙이고 있다(權廷雄(1999), 앞의 논문, 196-197쪽, 239쪽). 이는 진하특사의 열하 여행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관심이 판첸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반영한다.

101) 『熱河日記』 「黃教問答」, p. 169.

며, 박지원은 전자가 아닌 후자가 열하 방문의 유일한 목적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열하일기』에서 ‘열하 경험’의 초점은 판첸에게 쏠리고 말았고, 그로 인해 박지원은 열하의 칠순 만수절 자체가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¹⁰²⁾

이것 역시 ‘봉불지사’ 문제 때문에 박지원의 시야가 좁아진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과 ‘몽골·티베트’의 관계에 대한 박지원의 이해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몽고의 48부(部)가 바야흐로 강한데, 그중에서도 토번(吐番)은 더욱 강하고 사납다. 토번은 서북의 오랑캐로 몽고의 별부(別部)인데 황제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박지원의 말을 보자.¹⁰³⁾ 여기서 “몽고의 48부”는 박지원이 몽골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말은 기껏해야 내몽골을 포괄할 뿐 외몽골이나 청해(靑海) 등지 몽골 각 부는 반영하지 못한다. 또 내몽골의 경우라 할지라도 “48부”는 강희 말년의 상황으로, 건륭 45년의 시점에서는 “49부” 또는 “49기(旗)”가 정확하다.¹⁰⁴⁾ 또한 박지원은 여기에서 강하고 사나운 토번을 황제가 몹시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 “서번(西藩)[문맥상 티베트: 인용자]은 강하고 사나우나 황교(黃教)를 심히 두려하므로” 황제가 그 법사(法師)를 우대한다고 하였다.¹⁰⁵⁾ 즉 박지원은 판첸에 대한 청의 우대 이유를 티베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102) 열하의 칠순 만수절 자체가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범진(2013), 앞의 논문 참조.

103)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 134.

104) 박지원보다 10년 뒤에 열하를 방문했던 서호수(徐浩修)는 내몽골 각 부의 현황에 대하여 대단히 정확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박원길(2010), 『조선과 몽골』, 서울: 소나무, 283-299쪽). 사실 박원길이 정확히 지적하였듯이, 박지원의 몽골 인식 수준은 서호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박원길(2010), 위의 책, 698-701쪽).

105) 『熱河日記』 『審勢編』, p. 219.

는 박지원이 과거 토번 왕국이 당(唐)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는 역사의 기억을 ‘호출’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몽골·티베트’에 대한 박지원의 이해 부족을 노정한 것으로, 노이점이 “몽고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이 양모(仰慕)하는 판첸을 특별히 초치(招致)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나¹⁰⁶⁾ 건륭 46년 4월 ‘동지사행’을 마치고 귀국한 부사 신대승이 “몽고를 두려워해서” 건륭제가 판첸을 우대하였다고 보고한 것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¹⁰⁷⁾

결국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의 필요성과 당시의 ‘몽골·티베트’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에는 칠순 만수절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각도의 관찰 및 이해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하특사의 열하 방문이나 판첸과의 만남이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였던 만큼 『열하일기』의 이러한 한계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6) 權廷雄(1999), 앞의 논문, 196쪽.

107) 『承政院日記』 정조 5년 4월 8일 조. 지금까지 박지원은 당시의 정세를 간파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 대표적 사례로 많은 연구자들이 황제의 열하 순행 목적이 피서가 아니라 실은 몽골을 제압하는 데 있다는 박지원의 견해를 종종 인용한다(任桂淳(2004), 「18세기 淸朝 제2의 政治中心地, 承德 避暑山莊」, 『明清史研究』 21, 169쪽; 차혜원(2010), 앞의 논문, 334쪽 등). 하지만 열하 순행을 몽골 제압책으로 보는 견해는 조선에서 일찌감치 ‘상식’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강희 말년에 해당하는 숙종 38년(1712) 4월 ‘동지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복명하는 자리에서 서장관 유명웅(兪命凝)은, “저들은 몽고를 격정거리로 여깁니다. 황제는 매년 4월마다(열하로) 가서 8월에(북경으로) 돌아오는데, 피서를 핑계로 대지만 그 내실은 곧 열하가 몽고 지방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몽고를) 진압하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承政院日記』 숙종 38년 4월 4일 조).

참고문헌

1. 1차 자료

『同文彙考』, 國史編纂委員會, 1978.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六世班禪朝覲檔案選編』,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清宮熱河檔案』, 中國檔案出版社, 2003.

『清實錄』, 北京: 中華書局, 1985.

嘉木央·久麥旺波, 許得存·卓永強 譯,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0.

丹珠昂奔 主編, 『歷輩達賴喇嘛與班禪額爾德尼年譜』,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8.

朴趾源, 『熱河日記』,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7.

錢寶甫 編, 『清代職官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0.

2. 2차 자료

강동엽(1988), 『熱河日記研究』, 서울: 一志社.

구범진(2013), 『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 『명청사연구』 40, 177-217.

權廷雄(1999), 『盧以漸의 『隨槎錄』: 解題 및 原文 標點』, 『경북사학』 22, 141-239.

김경록(2006),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193-230.

金東錫(2005), 『『수사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읽어보는 『열하일기』』, 『대동한문학』 23, 173-216.

- 김명호(1990), 『熱河日記 研究』,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혈조(2008), 「『熱河日記』 번역의 여러 문제들」, 『漢文學報』 19, 679-718.
- 김혈조(2009), 『열하일기』, 서울: 돌베개.
- 閔斗基(1986), 「熱河日記에 비친 清朝政治의 諸樣相」,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 서울: 一潮閣, 54-84.
- 박원길(2010), 『조선과 몽골』, 서울: 소나무.
- 任桂淳(2004), 「18세기 清朝 제2의 政治中心地, 承德 避暑山莊」, 『明清史研究』 21, 155-188.
- 차혜원(2010), 「열하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 변동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증언」, 『역사비평』 93, 329-353.
- 崔韶子(1992),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 『韓國文化研究院論叢』(이화여대) 61-1, 273-313.
- 崔韶子(1997), 「18世紀末 東西洋 知識人の 中國認識比較: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G. Macartney의 『中國訪問使節日記』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59, 1-40.
- 崔千集(1997), 「『熱河日記』의 表現方式과 그 意圖」, 『문학과 언어』 18, 185-209.
- 姜東局(2012), 「清と朝鮮の關係における圈域の分離と融合: 朝鮮使節とパン첸・라마의邂逅(1780)を事例に」, 『名古屋大學法政論集』 245, 241-276.
- 石濱由美子(1994), 「パン첸라마と乾隆帝の會見の背景にある佛教思想について」, 『內陸アジア言語の研究』 9, 27-62.
- 村上信明(2006), 「パン첸라마三世의 熱河來訪と清朝旗人官僚의 對應: 十八世紀後半의 清朝チベット關係の一側面」, 『中國: 社會と文化』 21, 125-141.
- 平野聰(2007), 『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 東京: 講談社.
- 柳森(2010), 「國內近三十年來關於六世班禪朝覲研究綜述」, 『四川民族學院學報』 19-2, 1-5.
- 柳森(2012), 「論《熱河日記》中的六世班禪形象」, 『民族文學研究』 2012-6, 148-155.
- 馬靖妮(2007), 「《熱河日記》中的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 張雙志(2007), 「18世紀朝鮮學者對清代西藏的觀察: 讀朴趾源《熱河日記》」, 『中國藏學』 2007-3, 33-39.
- 張亞輝(2013), 「六世班禪朝覲事件中的空間與儀禮」, 『中國藏學』 2013-1, 92-100.
- Hevia, James L.,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Meeting the Panchen Lama in *Yŏrha ilgi*

- A Critical Reading of Pak Chiwŏn's Account of the 1780
Chosŏn Embassy to Chengde -

Koo, Bumjin

In 1780 a Chosŏn embassy led by Pak Myŏngwon was invited to visit Chengde, or *Yŏrha*, and honor Qianlong's seventy-*sui* birthday. A detailed record of this embassy is provided in Pak Chiwŏn's *Yŏrha ilgi*, where Pak describes the encounter between the Chosŏn emissaries and the Panchen Lama in great detail. To date, Pak's *Yŏrha ilgi* has been read as a faithful historical record and a disinterested account of the Chosŏn emissaries' experiences in Chengde. However, when we compare Pak's account with various other historical records of his time, it becomes clear that *Yŏrha ilgi* is far from an objective account. The famous account of the statues of Buddha is a case in point. Pak Myŏngwon and his fellow emissaries received the statues from the Panchen Lama as gifts. They interpreted the statues as gifts given upon Qianlong's orders. Consequently, they decided to carry them all the way back to Chosŏn where they were severely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strict Neo-Confucian injunctions against Buddhism. Pak's *Yŏrha ilgi* was written in defense of Pak Myŏngwŏn's actions in the

face of this political criticism. In *Yörha ilgi*, Pak argues that the encounter with the Panchen Lama took place under circumstances far beyond Pak Myöngwön's control. A close reading of *Yörha ilgi* alongside other historical documents reveals that Pak Chiwön deliberately blurs the line between eyewitness account and second-hand report by leading his readers to confuse the date of a significant event in which Qianlong met the Panchen Lama in public. As a minor figure who was not endowed with diplomatic powers, Pak Chiwön was absent from many of the events he reported on. *Yörha ilgi* should not be read at face value, as if it were an objective historical record, but in historical context alongside other historical documents.